위기의 광주 LED산업

중 부품·소재·소자 공장이 없다

82%가 단순조립…기술·자본 취약

광주 LED산업이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산업구조가 단순조립 위주 업체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형 등 연관산업마저 취약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 LED업체들의 LED관련 인증 취득 등 기술개발 노력도 크게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0곳 중 8곳이 단순조립=LED산업은 부품·소재(잉곳, 웨이퍼)와 소자(에피·칩, 패키징), 조명(실내·실외·특수), 응용(전광판·디스플레이·수송기기 등) 등으로 분류된다. 대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수직계열화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LED업체들은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단순 조립형 조명·응용업체에 81.7%가 몰려 있다.

지난해 말 광주 LED업체 수는 131개였다. 이 중 소재분야 5개(3.8%), 소자 5개(3.8%)에 불과했다. 반면 조명업체는 82개(62.6%), 응용업체 25개(19.1%)나 됐다. 나머지 14개 업체(10.7%)은 장비업체였다.

기술집약형 소재·소자분야는 취약하고 단순조립형의 조명업체에 편중되다보니 매출액 분포도 기형적이다.

지난해 소재분야 업체의 매출은 총 10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1억원, 소자분야는 139억원으로 업체당 27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62.6%에 달하는 조명업체의 매출은 전체 1조3003억원의 11%인 1472억원에 그쳐 업체당 매출은 1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연관산업 부족·KS 인증 업체 고작 4개 뿐

대기업 진출로 조명시장 잠식 타격 불보듯

야간경관과 전광판 시장 등이 급성장하면서 응용업체가 지역 LED산업을 이끌었다. 25개 응용업체가 올린 매출은 9043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61억7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대기업이 LED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일반조명 및 응용조명의 큰 시장은 잠식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조명에 필요한 금형, LED용 회로, LED조명 확산PC(커버) 등 연관 산업도 취약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지역 대부분의 LED업체는 이들 부품을 경기지역과 전북 익산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금형업체의 경우 자동차·가전 중심이어서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LED조명의 금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용을 20~30% 더 들여 경기지역에서 금형을 가져오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품과 부품 가격의 불균형도 지역 LED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LED조명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부품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100W LED조명 제품의 가격은 100만원 가량 했지만 지금은 50만원으로 떨어졌다.

◇KS인증·고효율 인증 업체 부족=정부 조달시장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KS인증과 고효율 인증은 필수다. 하지만 광주지역 LED업체 중 KS인증을 받은 곳은 고작 4개 업체, 고효율 인증은 6곳 뿐이다.

현재 LED관련 인증은 법정 강제 인증인 'KC'(안전)와 법정 임의인증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KS'(한국산업표준)가 있다.

이 중 'KS'인증 취득이 가장 어렵다. 제품 안전성이나 효율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장 운영상태·가동률 등 시스템까지 측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KS인증을 취득하는데 1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취득이 어렵다보니 1300만~1500만원을 들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맡겨야 하고, 공장 시설과 측정장비 도입, 품질관리 인력 보강 등 약 1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6~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증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 물량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LED조명업체 대표는 "KS인증이 있어야 우수 조달물품이나 관급 납품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이 안된다"면서 "측정 수수료뿐만 아니라 컨설팅·시설 정비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동역 찾아간 취업박람회 9일 오후 광주시 일자리종합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 주최로 광주시 광산구 평동역에서 열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행사에서 평동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렉트로룩스에 매각 협상 제의

〈스웨덴 가전 회사〉

대우일렉 채권단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스웨덴 가전 회사 일렉트로룩스에 매각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대우일렉 채권단이 스웨덴 가전 회사 일렉트로룩스 AB와 매각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우일렉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31일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가전 회사 일렉트로룩스 측에 대우일렉 인수 의향을 묻는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2주간의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렉트로룩스 측 대변인은 "매각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대우일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당초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이 선정됐으나 지난달 5777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일렉트로룩스로 지위가 넘어가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농·축협 판매장에서 한우고기 파격 할인 판매

농협은 9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의 농·축협 판매장에서 불고기용 한우고기를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한우소비 확대를 위해 전국 118개 지역축협 및 조합원이 1000마리를 반값으로 기증 출하해 조합판매장에서 대폭 할인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기술원 M1급 도로조명기술 개발

'LED조명엔진' 실현 … 도로조명 최고 등급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은 9일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의 뉴 패러다임인 'LED조명엔진' 개념을 실현한 M1급 도로조명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LED조명엔진은 조명을 만드는데 필수인 LED모듈, 2차 렌즈, 방열부품, 전원공급장치를 한 데 모아 최적화한 것으로 제조사들이 이 엔진을 토대로 조명을 바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로조명 등급은 M1~M5가 있는데, M1이 최고등급이다.

이번에 개발한 도로조명 기술은 설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필요한 도로조명에 양산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LED 도로조명 제품은 보안등 및 일반도로와 차폭 및 설치 간격이 좁은 경우는 적용이 가능했으나 전용도로나 특수한 조건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최근 교체형으로 개발되는 LED조명의 경우 방열 구조에 의한 중량으로 인해 심미적인 디자인 적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광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LED 광원을 엔진화함으로써 광원 엔진을 활용한 다양한 가로등 배광 형성이 가능하며, 광원엔진 구조의 최적화에 의해 대량생산 부품 비용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유리하다.

광기술원 박정욱 박사는 "이번 개발품은 도로조명 기준에 따라 조도, 휘도 설계 기준으로 제품 변경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렌즈를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배광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LED투광등, LED보안등, LED산업등 등 다양한 제품의 광원 엔진으로 활용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ED조명 대기업 진출 반대 중기 적합 품목 선정 촉구

한국LED보급협회

한국LED보급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기업의 LED조명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LED조명분야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주력하던 LED조명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며 수백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LED조명 시장 진출이 중소기업들의 생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전국 최고

전국 18곳 중 1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9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0년도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평가 결과,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광주시로부터 8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받아 지역혁신 거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기업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지원 사업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한해 동안 기업들을 지원해 매출액 20% 이상, 고용창출 23% 이상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또 최근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기관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고의 기업지원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유동국 원장은 "그간 임직원들이 기업 지원과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성심껏 주어진 업무에 임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역의 거점기관으로서 더 많은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71.42 (-11.93)
▲ 코스닥지수	473.47 (+4.32)
▲ 금리 (국고채 3년)	3.57% (+0.05)
▲ 원·달러 환율	1082.90원 (+2.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

2011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여성가족부인정)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